

# 북한의 시장 경제 교육 및 경제·무역 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

권오홍 / (株)長漢信息 대표

**목** 1998년 당국이 유엔 및 국제 금융 기구들과 함께 경제 무역 및 금융 부처의 관리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 체제에 정통한 인재를 중점 육성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룡문 신임 무역부상이 최근 “우리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백방으로 살려 자본주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 사업에서 활로를 열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인재 양성 사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sup>1)</sup>서도 북한의 입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 관리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 경제 교육의 범위는 의외로 넓다. 단순 외국어나 경제학 원론 수준의 학습에서 각종 통계 수집·분석 기법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그 교육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IBRD) 아태지역 선임자문위원인 브래들리 밥슨 같은 이는 “북한이 경제체제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편입을 향한 북한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평가했다.<sup>2)</sup>

북한은 1998년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에 주로 의존한 채 경제 무역 관리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왔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은 1997년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경제 관리들을 외국으로 보내 시장 경제를 배우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98년 중반 기준으로 해외에서 시장 경제 연수를 이미 마친 북한 관리가 30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 2월 10일 “1998년 북한의 국·과장급 중견 간

1) 김룡문 북한 무역부상이 최근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회견한 내용.

2) Bradley Babson (IBRD Senior Advisor in Asia-Pacific Region) (1999. 1), “North Korea in Just Before The Change,” *IBRD Special Report*.

부 120여 명이 경제학, 경영학, 국제법 등을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를 나갔다”고 밝혔다.<sup>3)</sup> 임 수석은 이어 이 숫자는 1997년 10여 명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중국 등에서 시장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998년 9월 나진·선봉경제특구에도 나진기업학교를 세워 북한 경제 무역 관리 등을 대상으로 관광, 기업 경영, 통계, 지역 관리, 복지, 관세법령, 과세, 금융 등의 시장 경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sup>4)</sup> 유엔개발계획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로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이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부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옛속담처럼 경제 무역 분야에서 젊은 엘리트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초보적인 시장 경제 교육이 주류를 이뤘다.

### 북한, 세계은행에 시장 경제 교육 요청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대표적인 국제 금융 기구인 세계은행에도 경제 교육을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2월 평양을 방문한 브래들리 밥슨 세계은행 아태지역 선임자문위원에게 재무성·중앙은행·무역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제학 전반과 국제 금융에 대한 교육 제공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당시 세계은행은 이런 요청에 대해 국제경제체제와 보다 투명한 관계 설정을 희망하는 북한 당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서로간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이런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시장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짜게 됐다. ‘경제 관리 교육’이라고 불리는 첫 교육은 평양에서 4월 첫주부터 7주간 열리게 되며, 우선 북한 경제 부처의 핵심 관리 30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나진·선봉경제특구가 아닌 평양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교육이 외국 초청 전문 강사에 의해 실시되기도 처음이며, 세계은행이라는 국제 금융 기구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도 처음<sup>5)</sup>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경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적지 않은 변화로 읽혀지고 있다.<sup>6)</sup>

3)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실련 통일협회 초청 특별 강연(1999. 2.10) 내용.

4) 「조선중앙통신」(1998. 11.25).

가 및 기업 차원 모두가 보다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④ 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하게 하고, 정통성 결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공격적인 군사 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실제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할 경우, 당면하게 될 최대의 장애물은 북한 사람들이 시장 경제의 기본 개념과 국제 상거래의 기초 규범에 대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의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북한 사람들만이 경제학이나 재정학에 대한 공식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하고 훌륭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외국 시장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세계은행의 견해이다.

## 국제 경제 현황 모니터를 위한 연구 기관도 설립할 예정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은행은 교육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국제 경제의 현황을 모니터하는 전문 지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기관 설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 기관은 북한 정부 내에서의 정책 토론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경제 통합을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남한쪽 연구 기관의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이 현재 이 연구 기관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설립 시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재 양성은 물론, 북한 당국이 금융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 회생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을 얻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의사를 밝히는 한편, 1997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실사조사단의 입북을 허용하고, 1998년 2월 세계은

세계은행의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경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및 금융 관련 부처의 핵심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기부한 '북한을 위한 유엔개발계획신탁기금'에서 지원된다. 세계은행은 이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교육 기관인 경제개발원의 퇴직 직원을 컨설턴트로 특별 고용하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베트남 및 중국의 개방 초기에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는 이외에도 상해금융경제대학 교수들과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들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 세계은행, 2단계에 걸쳐 경제 교육 대상 확대

세계은행은 북한 경제 관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우선은 2단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영어와 기본 개념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에서는 1차 교육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분석한 뒤 북한 재무성 및 중앙은행 고위 관리들에게 강의를 통해 학습한 기능들이 실제 시장 경제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해외 현장 시찰(study tour)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현지 시찰 대상 국가로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고려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당초 북한의 경제 부처 중간 관리 및 관계 기관의 정책 실무자, 대외 업무 담당자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2~3 주의 단기 프로그램을 평양에서 실시하기도 했으나, 북한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교육 기간을 7 주로 늘려 잡았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차 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북한 경제 무역 관리들을 상대로 중국 상해에서 열 계획이나, 보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교육 내용은 1차 교육을 실시한 뒤 새로 짤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이런 교육의 확대가 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① 북한으로서는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음으로써 국제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적절한 교류를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② 외국인 투자가 및 무역 파트너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정치 협상 스타일을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협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③ 국

5) 제임스 울렌슨 세계은행(IBRD) 총재는 지난 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한 자리에서 "UNDP로부터 (북한 관리들에 대한 경제 교육) 연수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북한과 세계은행간 공동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세계은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1999. 2.28)).

6) 브래들리 밥슨(Bradly Babson) 세계은행 아태지역 선임자문위원은 이런 일련의 변화를 근거로 김정일체제의 성격을 '보수적 실용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IBRD)방북단 등을 받아들이는 등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한 접근을 적극 시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자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 기구의 대주주인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과의 안보 정치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가입을 지지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 북한의 국제 금융 기구 가입은 요원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국 경제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 유엔농업개발기구(FAO)도 통계 분석 교육 실시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세계은행뿐만 아니라 유엔농업개발기구(FAO)와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농업개발기구는 기술협력계획(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자금으로 북한내 일부 지역의 축산 분야에 대한 통계 수집·분석 활동을 1998년 8월부터 4개월간 지원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컴퓨터 지원 및 북한 통계 부처 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1998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교육 훈련에서는

주로 각종 경제 통계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하는 방법 등이 다뤄졌다. 국제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실시할 2단계 통계 수집 분석 지원 사업 때는 보다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의 이런 교육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나 효율적인 대내외 경제 정책이란 것이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해야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의 통계 분석 교육은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시장 경제 학습 열기와 맞물려 경제 무역 관련 조직의 정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두 갈래 움직임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한 뒤 단계적으로 대외 및 대남 관련 경제 무역 조직을 개편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들 조직에 대거 신진 인물들을 기용했는데 이들이 세계은행 등에서 마련한 시장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우선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경제 무역 관련 조직의 정비 내용으로 볼 때 조직이 크게 단순화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 조직은 크게 대외 경제 부문과 대남 경험 부문 부서로 명확하게 나뉜다. 먼저 대외 경제 부문은 내각내 무역성이 정점에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소속돼 있다. 개편 이전에는 정무원내 대외 경제위원회와 무역부가 각각 따로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무역성이 이 두 업무들을 모두 떠맡게 됐다. 무역상은 이미 알려진 대로 무역부장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무역 전문 관료 출신 강정모가 임명됐다. 부상은 이전 10여 명 정도에서 6 명으로 줄었다. 김룡문, 김봉익, 구송(성)복, 임태덕, 구본태, 김동명 등이다. 김봉익은 대우남포공단 사업의 파트너 기업인 삼천리총회사의 총사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임태덕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남쪽 기업인에게 익숙한 인물이나 나머지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역부상 아래에는 참사실, 2 개의 지역정책국(대외건설관리국, 경제정책합작국)이 있으며, 이들 조직은 수출과 수입 관계, 국제 기구, 무역 정보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경제 협력, 의전, 법규, 계획 입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sup>7)</sup>

## 무역성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중심의 대외(남) 경제 무역 기구 정비

한편, 무역성은 산하 조직으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무촉위)와 각종 무역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역할과 소속 인물도 대폭 개편했다. 우선 북한 당국은 무촉위의 기능은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기구는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 특히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주로 맡아왔으나, 이제는 전반적인 서방 국가와의 무역뿐 아니라 외자 유치 활동 등 경제 협력 분야까지 담당하게 됐다. 위원장은 김룡문 현 무역부상이 겸직하고 있으며 최근 가장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고 있다.<sup>8)</sup> 그외 김정기 부위원장, 차락준 서기장, 염용준 부서기장 등의 진용으로 짜여져 있다. 김문성 위원장, 오태봉, 김일근 서기장 등 기존 간부진들은 대부분 물갈이됐다.

무역 회사에도 거센 구조 조정 바람이 휘몰아쳤다.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저조한 무역 회사를 통폐합하고, 살아남은 무역 회사는 경영 구조를 단일화·전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 당국은 내각의 각 쯤을 포함한 정부 기구가 꼭 필요로 하는 일부 무역 회사를 제외한 무역 회사를 모두 무역성 관할 아래 놓이게 하고, 현존하는 13 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토록 했다. 각 도와 직할 시도 한 개의 무역

7) 東アジア經濟貿易研究會(東京)(1999. 2), 「東アジア經濟情報」, pp. 1~2.

8) 김룡성 무역부상은 최근 「朝鮮新報」 최근 호와의 회견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 확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특수경제지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1999. 3.22)).

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외는 모두 무역성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당과 군부 소속 무역 회사도 상응하는 정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북한의 전체 무역 회사는 당초의 300여 개에서 100여 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sup>9)</sup>

대남 교역 및 경험과 관련된 조직도 대체로 마무리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지난해 5월 말에 생겨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대남 경험 창구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점이다. 남쪽 기업들의 교역 혹은 각종 임가공 사업, 대북 투자 사업 등은 민경련 혹은 민경련 산하 기업과 이뤄지고 있다. 민경련은 삼천리총회사 사장, 광명성경제연합회 회장 등을 거쳐온 정통 경제 무역 전문가인 정운업이 맡고 있다. 부회장에는 지난 1998년 4월 남북차관급 비료회담 때 회담 대표로 나온 적이 있는 리창호가 앉아 있다. 그는 농산물 관련 무역 전문가로 북한에서는 비교적 통계에 밝은 몇 안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산하 기업으로는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총사장 이돈욱),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관광총회사(총사장 방종삼) 등을 두고 있다. 광명성은 피복·경공업·농수산물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삼천리는 대우의 남포공

단 사업을 비롯해, 전자·중공업·화학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 사업을 전문으로 맡고 있다. 삼천리는 또 그 아래에 평양전자제품개발회사(사장 김남호)를 두고 남쪽 기업과 전자 분야 합작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무역회사는 최근 주로 남쪽 기업과 계약 재배 등 농업 분야에서의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총회사는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이처럼 민경련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남쪽 기업과의 굵직굵직한 무역 및 합작·합영 사업을 도맡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민경련의 위상을 과거에 비해 크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최근에는 민경련의 북경 및 단둥대표부의 활동이 가장 눈에 띄고 있다. 북경에는 역시 지난 1998년 4월 남북차관급 비료회담 때 대표로 나온 바 있는 이치훈이 수석 대표로 활동하면서 남쪽의 기업인과 각종 단체의 대표들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단둥에는 이전에 광명성총회사 총사장이었던 전성근이 동북3성을 무대로 남쪽 기업과 주로 농수산물 등의 교역 분야에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민경련을 관할하는 상위 조직은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다. 당국은 민경련의 전신인 광명성경제연합회가 정무원 소속의 대외경제

9) KOTRA(1992. 2), 「북한뉴스레터」, p. 8.

위원회 산하 조직이었음을 보기로 들어 현 내각 무역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역성 산하 단체의 장은 보통 무역부상직도 동시에 맡아왔으나 민경련의 정운업 회장은 제외돼 있고, 무역성이 주로 남한을 제외한 다른 외국 기업과의 무역이나 경제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남쪽과의 각종 경제 교류 사업은 동포 사업으로 규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경련이 내각의 무역성 소속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오히려 중앙당 외곽 조직인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의 지휘 통제를 받거나 혹은 상호 역할 분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경제 사업일지라도 남북 관계를 감안해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아태평화위가 전면에서 나서고, 순수 경제 사업 쪽에 가까우면 민경련이 처리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 북한,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이처럼 북한의 대외 및 대남 경제 무역 조직은 지난해 9월 이후 정비되기 시작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나진·선봉경제특구에의 투자 유치 활동 담당 기관이었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만의 조직 개편 내용이 베일에 쌓여있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늦어도 4월 초에는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다. 일부에서는 이 조직은 이미 간판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대경추 소속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기업인이 적지 않고, 북경에도 주재 대표격인 김종운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들 대외(남) 경제 조직에 적합한 외국어 혹은 국제 경제 실정에 밝은 인물들을 찾아 중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정비가 계속 늦춰져온 것도 이런 절박한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해온 탓으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유엔개발계획이나 세계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절박한 인재난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할지라도 북녘 땅에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학습 열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7**